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 이희동 기자 | ㉠ 승인 2024.04.05 11:53

■ 현장에서 만난 사람 - 김종성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종성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 재해발생 ‘제로’와 청년농을 위한 농지은행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다.

‘2024 재해발생 제로’에 최우선

디지털 대응체계로 재난관리 효율성 ↑

전국 최대규모 농지은행 사업비 확보

“안전 우선 의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종성 본부장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단연 ‘안전’이었다. 김 본부장은 공사 본연 역할은 농업기반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있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하며 위험 요소의 사전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곧 취임 100일을 맞는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지역본부를 이끌어갈 것인지.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본부장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취임식에서 농업기반 시설과 영농환경의 철저한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기후위기에 따른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SOC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최근 빈번한 국지성 극한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체계를 튼튼히 하겠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논의 타 용도 이용을 위한 용수체계 구축,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수도권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가올 영농환경 변화에도 대비하겠다.

두 번째 역시 안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적용대상 확대로 그 어느 때보다 작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사에서는 올해부터 안전관리센터를 정규조직화하고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지역본부도 ‘2024년 재해발생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주기적인 합동 점검과 더불어 온라인 지도 서비스와 이동형 CCTV 등을 통한 실시간 현장관리, 구글폼을 활용한 안전서류 모니터링 강화, 드론을 활용한 현장 안전 사각지대 제거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시설은 저수지 109개를 비롯해 총 956개며, 30년 이상 경과 노후 시설물이 절반에 가까운 463곳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 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보강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관련해 올해 관련 사업규모는 62지구에 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재해발생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작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습

-재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부터 스마트 재해예방 계측사업을 신규 추진해 ICT 기반 저수위, 제방 누수와 변위계측기, 강우량계 등 설치,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에 누수, 지진, 제방변위 계측기 설치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물관리자동화사업으로 현재 경기지역 저수지와 양·배수장 43%에 TM/TC 설비가 구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을 원격으로 계측·감시·제어하고, 무인 자율배수장 가동시스템 등을 갖춰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중장기적으로 양·배수장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무인 예약운전시스템 시범도입 등 디지털 농업용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 비상대처훈련, 위기 단계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비상연락망 정비, 수방자재 점검 등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있고, 본사·본부·지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위기대응팀(ER) 구성으로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도 꾸렸다.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지은행과 은퇴직불제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사업계획은.

공사에서는 ‘진입·성장·은퇴’라는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농, 전업농, 고령·은퇴농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하거나 상속받아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소재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를 전략적으로 매입해 농지집단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매입한 농지를 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방식으로 청년농에 임대한다.

60세 이상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 ‘농지연금사업’,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농가 경영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농지를 매입해 채무를 상환해 주고 해당 농가에 최대 10년간 임대하다가 환매할 수 있도록 한 ‘경영회생지원사업’도 현장반응이 아주 좋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유 농지를 곧바로 매도하는 ‘매도이양’ 방식은 농지 매도대금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은 소유 농지로 농지연금 가입과 농지은행 임대(최대 10년) 후 종료 시점에 감정평가가격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도대금과 더불어 농지연금, 임대료 그리고 직불금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전국 최대규모인 3490억원의 농지은행 사업비를 확보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업농으로의 성장, 위기농 회생지원,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 등 생애주기에 따라 영농여건 개선과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해 모든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



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